

# 발달장애 골퍼 이승민, 'US 어댑티브 오픈' 초대 챔피언 등극

한국의 발달장애인 골퍼 이승민(25)이 세계 각국의 장애인 골퍼들이 겨루는 제1회 US어댑티브 오픈에서 우승했다.



▲ 제1회 US어댑티브 오픈에서 우승한 이승민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있다. 사진=USGA

21일 'JTBC GOLF'에 따르면 이승민은 전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파인허스트 리조트 6번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쳐서 최종합계 3언더파 213타를 기록했다. 이날 3타를 줄인 스웨덴의 펠릭 노먼(발달 장애)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를 펼쳤고, 2홀 합산 연장전에서 승리해 초대 챔피언이 됐다.

미국골프협회(USGA)가 올해 처음 창설한 이 대회는 11개국의 15~80세 남녀 골퍼 96명이 출전한 가운데

데 3일간 하루 18홀씩 54홀 경기를 치렀다.

두 살 무렵 선천적 자폐성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이승민은 중학교 1학년년부터 골프를 시작해 고교 2학년이던 2014년에 세미 프로골퍼 자격을 얻었고, 2017년에는 다섯 번의 도전 끝에 KPGA투어 사상 처음으로 1부 투어 프로 선발전을 통과한 발달 장애 선수가 됐다. KPGA 코리아투어 대회에도 출전해 2018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컷 통과했고, 올해 SK텔레콤 오픈에선 공동 44위에 올랐다.

이승민은 "꿈을 이룬 것 같다."면서 "마스터스에 나가서 파이널 라운드까지 경기하는 것이 꿈이다."고 말했다.

# 연봉보다 많은 홈런 더비 상금



▲ 홀리오 로드리게스. 사진=seattletimes.com

시애틀 매리너스 신인 외야수 홀리오 로드리게스(22)가 올스타전 홈런 더비 준우승으로 연봉보다 많은 상금을 받았다.

19일 'OSEN'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전날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 예선에서 3분간 32개의 홈런을 치며 신인 선수 최다 기록을 세운 로드리게스는 24개를 친 코리 시거(텍사스)를 누르고 2라운드에 올랐다. 2라운드에선 2년 연속 우승자 피트 알론소(뉴욕 메츠)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3분간 31개의 홈런을 치며 23개를 넘긴 알론소를 제압했다.

결승전에선 후안 소토(워싱턴)에게 무릎을 꿇었다. 추가 시간 포함 2분30초 동안 총 18개의 타구를 담장 밖으로 보냈지만 소토가 19개를 치면서 우승에 실패했다. 홈런 더비 우승 상금 100만 달러는 소토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준우승을 차지한 로드리게스에게도 연봉 70만 달러보다 5만 달러 더 많은 75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졌다. 70만 달러는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 지난해까지 57만500달러였지만 올해 3월 새로운 노사단체 협약(CBA)에 의해 70만 달러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런 더비 준우승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만큼 올스타전 상금이 세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우투우타 중견수 로드리게스는 지난 2017년 7월 국제 아마추어 계약으로 시애틀 유니폼을 입었다. 마이너리그를 거쳐 올해 메이저리그 무대에 데뷔했고, 데뷔 첫해부터 주전으로 자리잡았다.

# 커리 "2017 워리어스가 2001 레이커스 이긴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가 흥미로운 견해를 내놓아 화제다.



▲ 스테픈 커리. 사진=gazettenet.com

19일 '점프볼'에 따르면 스포츠 전문 매체 'COMPLEX'는 전날 커리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2017년 골든스테이트와 2001년 레이커스가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라는 질문에 커리는 "골든스테이트가 레이커스를 이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원투펀치를 이룬 레이커스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리그 3연패에 성공, 전성기를 구가했다. 가장 압도적인 시즌은 2001년이었다. 당시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 전체 16경기 15승 1패를 기록했다. 승률은 93.8%. 이는 골든스테이트가 2017년 플레이오프에서 경신하기 전 시점까

지역대 1위에 올랐던 승률이다.

2017 골든스테이트는 NBA 역대 최강팀으로 손꼽힌다. 골든스테이트는 2015년 우승에 이어 2016년 73승을 획득, 1996 시카고 불스의 기록을 경신했다. 2017년에는 케빈 듀란트의 합류와 함께 더욱 막강한 전력을 구축,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를 통째로 스윕(12승 0패)했다.

아쉽게도 파이널 5차전에서 패하며 플레이오프 전승 우승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골든스테이트는 2016-2017시즌 플레이오프 17경기 16승 1패(94.1%)로 종전 2001 레이커스가 갖고 있던 역대 단일 플레이오프 최고 승률을 갈아치우며 정상상을 받았다. 커리 역시 당시 골든스테이트 우승의 주축 멤버로 두 번째 우승반지를 썼다.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 Home Remodeling